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360
----------	-----

발의년월일 : 2020. 6. 26.

발 의 자 : 조대영, 최선근, 이재안, 신재걸,
강희문, 배용주,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주 문

- 별첨 “건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 강릉은 경포해수욕장, 안목 커피거리, 주문진 및 옥계 금진 해변의 서핑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의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처리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속초, 동해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해양 지역 치안, 해상 교통 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전 등 해안 지역의 치안을 전담 할 “강릉해양경찰서” 의 신설 촉구를 강력히 건의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국회의원 권성동,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강릉시의회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강릉은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73km의 해안선과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2개소 등 총 15개소의 크고 작은 어항, 그리고, 500여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중심의 해양수부도시로서,

정동·심곡 어촌뉴딜 300 사업, 해중레저·생태관광 중심권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해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거점도시인 강릉은 경포해수욕장, 안목 커피거리, 주문진 및 옥계 금진 해변의 서핑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지역의 해양 치안은 속초해양경찰서의 주문진 파출소, 동해해양경찰서의 강릉파출소 등으로 분할 관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의 해양 여건 보다 작은 속초, 동해 지역은 각각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양지역 치안 및 해상교통 안전 관리 등 유기적으로 대응 해 오고 있으나, 강릉지역의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처리 시 장시간이 소요 되는 속초, 동해까지 방문해야 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점점 빈번해진 태풍 북상으로 인한 기상 악화, 해양 레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수상 인명 구조 시에는 해경 관할 함정의 신속한 초기 대처가 불가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강릉은 연간 2천 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동해안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KTX 강릉역 신설, 관광거점 도시 선정 등 강릉의 향후 100년을 준비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양 관광지의 치안이 뒷받침 되어 관광객들이 강릉을 믿고 방문 해야 강릉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22만 강릉시민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해양지역 치안, 해상교통 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전 등 해안 지역의 치안을 전담 할 “강릉해양 경찰서”의 신설 촉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 6. 29.

강릉시의회